

## 肢體障礙人의 心理的 再活을 위한 性格 및 價値觀 分析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엄익곤 · 김규수

### An Analysis of Value and Personality for the Crippled Person's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Taegu University

Eum, Ik-Gon, Kim, Kyu-Soo

#### <Abstract>

This study is search for analyzed the primary factor of psychological characters of crippled person towar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at is the most fundamental to all rehabilitation for a crippled person. The research is, make a comparative analyze to personality character, value character, and motion, and then examined the relation of among them, by applies to high school's crippled students.

First, in the personality character aspect, a group of crippled student's is shown that the factor of family relations is lack harmony than normal group, that is, shown up that a parents and family members is oversensitiveness to crippled person, So sometimes they overprotectiveness, unconcered, and not accept it is.

Also, in the factor of confrontability aspect, a group of crippled person's average is shown to high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and then, it shown that they are irresponsible, have a weak self-control, and show a marked trend toward self-control. This is means that crippled person have scruples about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But friendship, adaptability, cheefulness, and emotonal stability is shown no difference with normal person.

Accordingly, in the personality aspect, the factor of family-relation and confrontability can be know that the objec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cond, in the sence of value aspect, crippled students i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had higher than normal group toward the factor of variety, therefor we can know that they have purpose to more pursur of variety in the living.

This is consideration that a raise from the limited of social contact chance and badly informed and experience.

Also, the factor of purpose-intention is shown that crippled students had low score than normal group, then, that means that they have a weak will toward cope with various problems in daliy living.

Crippled student is, in contrast to lacked fixed purpose with self-living, and also insufficient tring to accomplish their objects.

Third, crippled students motion shown that related to low level of personality character and a sence

of value factor.

Daily living activity is show that related to the factors of confrontability and cheerfulness.

This means that rehabilitation service given a change to confrontability and cheerfulness that can be effect is related. And the activity of home is related with confrontability,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the change of activity is can say that it should be contribute to strengthen toward responsibility and self-control from self-central to intention at the others.

Fourth, the relation between an motion and a value of crippled student is shown low level of regulations that can be ignore.

In sum, in the rehabilitation of crippled person, hereafter, a study subiect is if which search to character factor and to find out effect inter-factors within the the factor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s medical, occupational, social rehabilitation, then probably more effective development toward rehabilitation programs.

Consequently, hereafter for the crippled person's rehabilitaton, the study should be rquirement for establish a character and factors each filed of rehabilitation.

The study subiect toward crippled person's rehabilitation for the fature is search for character factor toward medical, occupational, and social rehabilitation, and find out inter-relation among then like as search of this study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crippled person, if is not preceding of study like this, it ought to be difficult to creation service as well as development to effective program.

## I. 序 論

### 1. 研究의 意義

人間은 生物學的 生存인 것과 동시에 精神的, 社會的인 存在이다. 따라서 만일 身體의 損傷이라는 生物學的 次元에서 問題가 초래되면, 그 影響이 生物學的 次元에 그치지 않고 多樣하게 精神的, 社會的 次元의 問題에 미치게 된 精神發達의 肢體나 精神障礙 등 직접 精神現狀 그 자체에 障礙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더욱 個人으로서의 問題가 크다. 일반적으로 心身의 일부에 障礙를 갖는 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個人 全體의 問題이며 더우기 그 個人的 生活全體의 問題가 된다. 人間은 손, 발과 같은 部分 集合體가 아니라 마음과 몸의 統合體이며, 또한 環境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社會的 共同體의 成員이다.(김중대, 1989)

障礙人은 時代와 文化的 背景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複合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任意的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障礙人의 年齡이나 種別, 程度, 判別方法 기타 條件이나 障礙人을 教育 對象으로 보느냐 또는 福祉對象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障礙人의 意味가 달라질 수 있다.

教育的인 定義의 예로 미국의 障礙人 教育법 에서는 "障礙人이란 精神薄弱, 難聽, 身體的 缺陷, 健康障礙, 視覺障礙, 中途 情緒障礙 특정 學習障礙들을 포함한 자로서 特殊教育과 그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再活法(Rehabilitation Act. 1973) 제7조 6항에서는 "障礙人이란 주요 生活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制限을 주는 身體的 또는 精神的 缺陷을 갖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손의목, 1982).

한편 ILO(국제노동기구)는 身體障礙人의 職業再生에 관한 (수총직수, 1982)에서 규정하고 있는 定義를 보면 "障礙人이란 身體的 또는 精神的 또는 精神的 缺陷의 結果, 적당한 職業을 確保하거나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展望이 없는 상당히 損傷을 받은 個人을 말한다"(I. L. O Recommendatim No. 99). 이는 타고난 障礙이든 環境의 社會的 障礙이든 간에 身體的, 精神的 機能상의 차이 때문에 家族生活이나 社會 生活을 自己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96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障礙를 機能障礙(impairment), 能力障礙(disability), 不利(handicap)의 3단계로 구별했다. 機能障礙라 함은 永續的 또는 일시적인 病理的 상태로서 그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能力障礙라 함은 機能障礙에 의하여 생리적인

日常生活을 보내기 위한 機能의 能力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며, 不利라 함은 機能障礙 또는 能力障礙에 기인하는 社會的 不利로서 自立한 生活이나 教育, 就業 등이 阻害받고 있는 것이다. 機能障礙는 일명 1차적 障礙라고 하며, 1차적 障礙(inpairment)를 治療的으로 제거 回復하게 하며, 個人生活의 不自由 속에 出現하는 能力障礙(disability)는 2차적 障礙로 醫療的, 心理的, 教育的, 職能的으로 가능한 輕減시키거나 發達, 促進, 保障 해야 한다. 그리고 不利 즉, 3차 障礙(handicap)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社會環境을 위해서는 家庭, 施設, 地域社會, 國家라는 環境을 총체적 혹은 生態學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이태영,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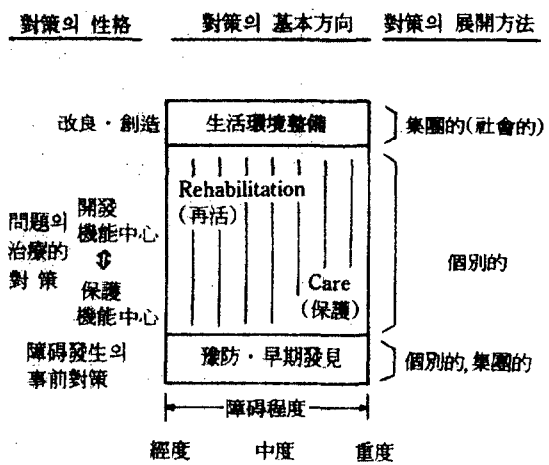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볼 때 障礙人은 心身의 機能에 어떤 缺陷이나 損傷이 있음으로 인해서 특수한 活動이나 生活機能에 制約을 받게 된다. 또한 障礙人은 社會生活에 필요한 身體的, 精神의, 社會的, 經濟的, 職業的, 여러요건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心身障礙人을 위한 再活의 基本 方向은 가능한 한 身體的, 精神의, 經濟的 有用性을 障礙로부터 최대한 回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再活은 障礙人 身體의 潛在能力을 저확하게 認識 하도록하여 自己實現 慾求에 대한 機能을 최고 수준에 成就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激勵해야 한다. 再活過程에서 再活의 效果를 결정하는 心理的 要因중 再活에 대한 慾求, 信賴, 勇氣, 價値實現등을 포함하여 再活의 早期診斷, 早期治療, 早期教育의 機會構造가 社會制度的으로 확대 보장되어야 하며, 障礙人을 위한 再活은 醫療的, 教育的, 職業的 等機會均 등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障礙人을 社會로부터 隔離收容하는 閉鎖的 單色的 性格의 保護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社會統合을 위한 豫備的 準備過程으로서 社會共同體 의식의 형성과 障礙人和 正常人과의 圓만한 社會的 相互關係를 能動的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社會參與意識과 확고한 自我意識을 심어줄 수 있는 社會教育 指向的인 것이어야 한다 (황원영, 1980).

그러므로 障礙人의 對策은 그 個人의 能力如何에 責任을 돌리는 것은 無意味하며, 地域社會에 發生한 問題이므로 國家社會가 政策的으로 制度를 마련하여 필요한 시설, 專門家, 그리고 效果的인 運營計劃을 세워서 地域社會 構成員 協同으로 이를 해결하는 原則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人類가 發展한

社會的, 經濟的인 諸 資源과 科學的, 技術的인 專門家의 能力과 公的인 責任性에 入脚하여 障礙人도 時間的, 空間的으로 生을 함께 누리는 동등한 人權을 가진 家庭과 社會의 構成員이라는 올바른 障礙人 觀을 확립하여 人間愛와 社會連帶性을 강화하여 그들의 存在가 國家社會 發展에 累를 끼치는 無能力 者로 불것이란 障礙人의 社會復歸를 위하여 再活, 自立, 保護와 福祉의 機會가 開發, 伸張되어야 한다(이태영, 1985). 이에 障礙人의 再活을 위한 政策的 課題는 再活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간의 有機的인 調整과 效果를 적정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障礙人의 再活對策의 基本方向은 그 對策의 性格, 障礙의 程度 對策의 展開方法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이 圖式化 할 수 있다 (이태영, 1981).

〈表 I〉 再活對策의 基本方向



障礙人의 再活對策의 方向은 그 對策의 性格에 따라서 障礙發生의 事前對策과 障礙의 治療的 對策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治療的 對策은 다시 保護機能의 保護(care)와 開發機能 中心 再活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機能은 障礙의 程度에 따라 그 機能을 달리하고 있는데, 障礙 무거울수록 保護(care)의 比重이 크고, 障礙가 가벼울수록 再活의 比重이 강조되게 된다.

따라서 再活과 關聯된 여러가지 要素들을 볼 때, 障礙人 再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障礙人 自身의 動機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要因이 障礙人 自身의 心理的 要因과 깊은 關聯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社會에 재적용하려는 障礙人에게 再活에 대한 慾求와

이에 대한 刺激을 유발시켜주는 것이 再活의 心理的 過程이므로 慾求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過程이다. 障礙人 자신이 再活에 대한 動機缺如가 心理的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설명도 있다.(Shontz, 1978). 이러한 理論的 설명에 의하면 障礙人이 심각하게 느끼는 不適應의 측면이 內在되어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肢體障礙人의 成功的인 再活은 自身과 障礙에 대한 態度 및 再活의 意欲(volition), 動機形成(motivation)과 같은 障礙의 心理的 適應에 달려 있다.

## 2. 研究의 目的

障礙人의 再活에는 醫療的, 社會的, 職業的, 教育的 再活 등이 要求되나 心理的 再活은 모든 再活에 基本的인 基礎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再活을 위한 介入 方案을 摸索하는데 있어서 心理的 再活에 결정적인 影響을 주는 要因을 設定, 探索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再活에 보다 具體的이고 實踐的인 再活 프로그램을 計劃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은 肢體障礙學生에 대한 性格檢査, 價值觀檢査, 그리고 動作性檢査를 통해 肢體障礙人의 動作性에 影響을 주는 心理的 特性要因을 探索함으로써 再活介入에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 II. 理論的 背景

### 1. 肢體障礙人의 心理的 再活의 必要性

最近에 治療醫學과 豫防醫學의 발달로 急性疾患으로 인한 死亡率은 낮추게 되었으나 慢性病, 産業災害, 交通事故 등으로 인한 障礙人의 數가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障礙人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고, 障礙人이 社會에 적응하며 人間으로서의 平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人道主義的 사업과 經濟的으로 독립시킬 수 있게 하기위한 障礙人의 再活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 특히 肢體障礙人의 職業再活 施設과 再活프로그램이 政府 및 社會福祉機關 등에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肢體障礙人의 再活은 醫療的 再活과 基本的인 自立生活을 위해서 職業再活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心理的 再活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肢體障礙人이란 肢體(체간과 사지)의 기능에 不自由한 部位가 있어서 그대로는 自活이 困難하거나 行動이 不自由한자이거나, 신체구조에 어떤 疾病이나 外傷등

으로 그 機能에 障礙가 있어 자유스럽게 運動이나 再活을 하지 못하는 狀態를 의미하는 것이다.(안병준, 1978) 이는 障礙人을 時代나 文化 또는 觀點의 차에 의해 다르지만 대체로 平均的 基準이나 價值的, 病理的, 發達環境의 基準에 의해 身體的, 精神의 情緒的, 社會的 여러측면의 發達이 均衡的인 正常集團으로 離脫되어 있는 것이다.(이영태, 1988). 이러한 肢體障礙人은 단순히 身體上 障礙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心理的 萎縮 및 劣等意識으로 社會的 適應相에 많은 문제와 障礙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心理·社會的 障礙人이 될 가능성이 높다(김상규, 전제일 외, 1990).

肢體障礙人은 일반적으로 正常人과 共通되는 心理 외에 非社會的 行動을 誘發한다던지, 慾求不滿이 누적되어 自己中心性이 강하고, 情緒的인 不安定性이 많으며, 對人關係에서 緊張感이 높은 경향이 있고, 依存心이 강하여 退行的 行動으로 나타내는 등 獨特한 心理的인 傾向성이 있다(김규수, 1988). 이상과 같은 障礙人의 共通된 心理的 상황은 社會的 劣等感(social inferiority)과 不安이다. 障礙人은 자기 身體部分에 障礙가 있으므로 해서 精神的인 障礙를 가지기 쉽다. 그것은 社會의 正常人들이 障礙人에 대한 偏見과 認識의 잘못에서 오는 二重의 障礙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障礙를 完화시키고 社會的 機能을 최대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心理的 再活이다(김상규, 전제일 외, 1990).

心理的 再活이 활발히 논의된 것은 再活 서비스가 각 專門分野別로, 즉 醫療的, 職業的, 教育的으로 發達되어 오다가 全入的 再活(total rehabilitation)에 力點을 두면서부터 이다(김규수, 1988). 비록 身體的 病患이 치유됐다 하더라도 日常生活과 일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治療가 完全하지 못하다고 했으며(Haward, 1971), 患者들이 醫師의 指示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知的 理解力이 不足한 것이 아니라 情緒的 原因에 起因하기도 한다. 身體障礙人에 있어서 수술 만으로는 不足하다고 한 것은 再活중에서도 心理社會的 측면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다(Heney, 1968).

再活過程에서 障礙人 자신의 再活에 대한 動機의 缺如가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心理的인 要因을 강조한(Shontz, 1978). 障礙人이 자기자신의 身體的 결함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냐에 따라서 자신의 障礙를 극복하여 生活에 적극적으로 指向할 수도 있고, 또한 障礙人에 대한 劣等感은 反動形成(reaction

formation)으로 加虐的(sadistic)이거나 自虐的(mesochistic)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肢體障礙人의 再活은 職業再活, 醫療再活, 教育再活등으로 社會適應이 용이하나 다만 情緒나 心理的 再活에 問題되는 劣等感, 依存心, 沒理解에 대한 恐怖, 障礙를 숨기려는 慾求등을 克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心理的 再活의 重點的인 課題이다(김상규, 전계일 외, 1990).

再活의 最終目的인 獨立의 生活을 위해서는 醫師, 看護士,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臨床心理學者, 社會事業家, 職業再活 專門家, 患者, 患者의 家族이 참여하는 全人的인 형태의 팀 접근(team approach) 방식의 再活治療가 이루어져야 한다(오정희, 1985). 그러나 再活의 目標가 障礙人의 完만한 社會復歸이므로 自身的인 側面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障礙人에게 의수족, 의자차, 가옥개선, 직업알선등을 해주기 전에 心理的인 측면의 解決이 가장 根本的인 課題이다. 어떤 形態 內容이든 障礙人의 心理的인 면을 올바르게 이해함이 없이는 再活이 圓滿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再活에서는 醫療的 再活, 心理的 再活, 社會的 再活, 教育再活, 職業的 再活이 있는데, 그중에서 心理的 再活은 障礙人 自身과 그 家庭 및 주위사람들의 心理的인 問題를 再活의 과정주에 가지는 慾求, 情緒, 關心, 價値觀, 態度등 心理的 要因에 대한 接近으로서 그들에 대한 心理的 向上과 協助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再活過程중에 빼놓을 수 없는 領域이며, 각 領域의 再活過程에 주요한 共通의 분야(오병훈, 1985). 心理的 再活은 障礙人을 對象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障礙人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障礙人 자신의 再活에의 慾求와 注意를 지니고 協助하지 않으면 再活의 큰 成果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Goldenson 등 1978). 따라서 障礙人을 再活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이 正常的인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相互作用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이 價値있는 存在라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2. 肢體障礙學生의 性格特性

일반적으로 障礙學生들이 身體障礙를 가지는 경우, 心理的 障礙도 수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행동은 消極的이고 態度가 분명하지 못하며 無意味한

反應, 無關心등의 行動特徵이 나타나고 또한 性格形成에도 많은 不適應의 問題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알려져 있는 사실이다(권기덕 1981). 즉 社會人들은 價値基準을 건강한 身體, 아름다운 몸에다 두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他人으로 부터 劣等感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肢體障礙人도 人間의 基本的 慾求로서의 自尊慾이나 優越慾을 가지고 있다. 이런 心理的인 矛盾과 葛藤이 感情에 의하여 慾求不滿에 빠지게 된다. 이와같이 肢體障礙學生은 社會적인 劣等評價와 不安에 접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性格形成에 影響을 미치게 되어 不適應을 나타낸다고 한다(Barker, 1953).

肢體障礙人의 不適應 原因으로는 攻擊的 行動보다는 逃避的 行動이 많고, 겁이 많으며 自我概念의 過剩이 보인다고 하였다(Ruke & Sellin, 1972). 肢體障礙人은 社會가 身體의 美, 健康, 能力등에 價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劣等評價 하나, 自我尊重에 대한 慾求是 매우 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身體的, 情緒的, 社會的으로 安定되어 있지 못하므로 心理的으로 자신과 자신의 能力에 대해서 疑心을 품게되고, 社會적으로 承認과 是認을 慾求하기 때문에 身體的 障礙를 건전한 自我概念으로 통합하는데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Hurlock은 自我概念을 身體的인 면과 心理的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身體的인 면은 그 身體의 構造나 組織 및 關係에 대한 概念이며, 心理的인 면은 正直性, 誠實性, 依存性등의 心理的 特性으로 구성된 心理的인 像(image)으로 自我概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Hurlock, 1978). 身體的으로 虐待를 받는 肢體障礙人은 信賴性이 약하며 情緒的으로 安定되어 있지 않고 他人과의 접촉을 싫어하는 性格의 特性이 있으며 自我概念에 부정적 면이 많다(Wick, 1977). 특히 身體的으로 障礙를 가진 학생들, 視覺障礙, 聽覺障礙, 肢體障礙를 가진 가운데 뇌성마비나 소아마비등으로 身體發達이 상상적으로 발될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身體能力이 부족하고 아니면 身體일부가 이상형을 갖게될 경우에 그의 態度가 어색하고 劣等意識을 所有하게 되어 自我概念發達에 影響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권기덕, 1981).

學生의 性格發達이나 장기적인 適應이란 觀點에서 본다면, 身體的인 障礙는 重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發達課程을 통해서 형성되는 自己概念이야말로 장기적인 適應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身體障礙學生은 일반적으로 劣等意識을

가지게 되고, 이 劣等意識이 自己概念形成에 影響을 미치므로 이로 인하여 不適應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結果의 주된 原因은 身體障礙 自體가 아니고 그 學生들의 父母나 教師의 態度에 더 많이 起因한다는 것으로 본다. 즉, 障礙學生의 適應力을 그들의 父母나 教師의 態度가 촉진하거나 제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Allen, Pearsan, 1928, J. Cook, 1963)

障礙인이 갖는 공통된 心理의 特性은 他人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스스로 社會에 귀찮은 存在가 되었다고 느껴서 자기의 社會에 있어서 存在價値를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좋은 對人關係, 社會關係를 유지하며 협조해가는 데는 각 個人이 그 社會에 있어서의 자기의 立場과 責任을 認識해야 하고, 높은 自己價値感인 自尊心(self esteem)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心理의 機察에 의해 障礙인은 正常人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민감하게 反應하여 社會에 있어서의 自己價値를 유지한다는 면에서의 葛藤을 일으켜서 劣等感을 招來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과보상(over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心理的 防禦機察(defense mechanism)에 의하여 障礙를 補償하기 위하여 강한제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혹은 또 전력을 다하여 그 缺陷을 덮어두고 숨기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다(김희경과 이정숙, 1990).

이러한 肢體障礙學生에 있어서 공통되는 心理的 障礙 原因은 여러가지로 생각 될 수 있으나, 그중에서 障礙의 類型, 正道, 原因등으로 大別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要因이 障礙學生의 性格形成에 여러 問題點을 가져오게 된다. 行動의 중심적 과제가 性格이고, 性格이란 너무 廣義의 概念이기 때문에 性格의 核心인 自己概念을 이해함으로써 人間行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寄與를 할 수 있을 것이다(권기덕, 1981). 일반적으로 自己란 人間의 內的으로 관련이 되어진 복잡한 要因들의 構造라고 보며 이것을 포괄적인 自己概念(generic self concept)이라고도 지칭하며(Wylie, 1968). 現代心理學에서는 自我라는 用語를 두가지의 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의미로서는 自己를 하나의 對象으로 보아 自己身體에 대한 態度, 感情, 知覺, 그리고 評價를 나타내므로 “對象으로서의 自我(self as object)”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의미는 “過程으로서의 自我(self as process)” 정의로 보는 것인데, 自我란 이것이

思考, 記憶, 知覺등과 같은 일군의 能動的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行爲者인 것이다(Hall, 1970).

일반적으로, 自己概念形成에서 自己自身の 身體的 要因과 父母의 養育方式(父母의 個性, 價値觀, 自己收容)이 더욱 중요하게 影響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Horlock, 1978, Divis, 1964). 특히, 障礙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身體發達이 정상적으로 이룩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自身能力이 不足하거나, 아니며 身體의 일부가 이상형을 갖게될 경우에 그들의 態度가 어색하고, 劣等意識을 항상 소유하게 되어서 自己概念形成에 影響을 주게 된다(권기덕, 1981). 自己나 自己概念이 人間의 行動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性格의 核心이 되기 때문에 自己의 概念이 肯定的으로 形成되어지느냐 否定的으로 形成되느냐에 따라 家庭에서의 適應, 交友關係, 學校에서의 適應問題와 學業成就, 職業選擇, 道德問題 등이 직접 관련되어지는 것이다(권기덕, 1981). 障礙인은 精神發達과 移動能力 또는 運動領域과의 사이에 不均衡이 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느낀다. 즉 自身の 精神的 慾求水準은 正常人과 비슷하지만, 自己의 身體的 障礙때문에 그 慾求를 充足시키지 못한다. 精神機能과 身體機能간의 이러한 不均衡이 心理的 問題를 더욱 深化시키게 될 것이다.

肢體兒童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의 身體와 環境과의 사이에 구별을 느끼기 시작하여 自身の 價値觀을 차츰 外界로 指向하게 된다. 이무렵 身體的인 障礙때문에 自己慾求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挫折을 經驗하게 될 것이다. 身體的으로 自發的 活動이 되지 않는 것이 心理的인 면에서 自發性 缺如를 생기게 한다. 그것에 의해 自我의 萎縮을 초래하게 된다. 自我萎縮은 障礙인의 공통된 心理特性인 硬直性(rigidity)을 일으키고 주변자극에 대해서도 無反應, 無關心의 態度를 가지게 된다. 自發性 缺如是 父母의 과보호에 의한 것도 原因이 되며, 자신이 하지않아도 父母가 自己의 要求를 充足시켜주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조병영, 1988).

肢體障礙學生의 性格特性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안병준, 1978).

첫째, 他動性(hyperactivity) : 항상 安定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눈에 띄이는 것, 특히 빛이 나는 것, 움직이는 것에 주의가 集中되고 行動的으로 反應하며 安定성이 없다.

둘째, 注意力 缺乏(lack of attention) : 環境內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주의를 集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필요한 刺戟이나 無關한 刺戟에 無選擇的으로 反應한다.

셋째, 固執性(perseveration) : 어떤 場面에서 다음 場面으로, 어떤 觀念에서 다음 觀念으로 轉換 또는 移行이 困難하다. 關心이나 주위의 폭도 狹小하여 人間關係에 있어서도 融通性이 없고, 性格面에서의 固執性은 나이와 함께 강하여 진다.

### 3. 肢體障礙學生의 價値觀特性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幼年期와 青少年期를 거치는 동안 價値觀을 形成하게 되며 이것에 따라 行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각 個人의 價値觀 概念은 그 個人의 行動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障礙人에 있어서 價値觀 確立은 個人的으로는 道德的價値의 認識, 社會的 成功目標의 內面化, 社會的 役割에 대한 行動의 기대, 社會的 相互關係에서의 相互主觀性의 확립등의 기초가 된다. 個人外的으로는 積極的인 社會參與意識을 形成하여 주고, 社會構成團으로서의 確고한 소속감을 內面化 시켜주며, 이를 통해 보면 妥當한 社會的 價値를 學習하게 된다. Rokeach는 價値觀을 특정 행동 양식을 道具的인 價値(instrumental values)와 人間의 窮極的인 目的狀態(End-state of existence)를 나타내는 終着的인 價値(Terminal values)로 二分하면서, 個人의 日常生活을 살아가는 方式을 道具的 價値에 의거하게되며 매일의 選擇과 의사결정은 終着的 價値에 의존된다는 주장을 했다 (Rokeach, 1973).

價値觀은 適應問題 學業成就, 個人關係 이외에도 道德性이나 就業選擇에도 많은 影響을 끼치고 있다. Benninga는 自我價値觀과 道德價値觀간에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Benninga, 1977). 그 뿐만 아니라 慾求挫折 내성을 확고히 형성해 주므로써 동등한 人格의 지위에서 自己實現의 기회가 확대되어진다. 價値觀의 形成과 發達에 관계되는 要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인간들이 先天的으로 타고난 知的, 情緒的, 身體的 尿素들과 後天全인 여러환경들이 모두 價値觀 概念의 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後天的 環境들 要因에서도 인간이 社會的 存在라는 생각을 하면 그가 속해있는 家庭, 學校, 職場, 地域社會등의 여러 社會集團構成團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價値觀 概念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행동에 自己價値觀概念이 크게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障礙人은 社會的 相互關係에 참가할 機會가 制約된 社會的 소의집단에서는 社會的 價値를 실현할 社會的 行動을 學習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自我意識의 內面化 정도가 정상인 보다 낮고, 相互關係의 相互主觀性도 확고하게 확립시켜주지 못하다고 한다 (pomp, 1963). Pomp의 研究에서도 障礙人의 價値觀은 정상인의 개념보다 많이 歪曲되어 있다고 한다. 障礙人이 이러한 否定的인 價値觀 概念을 갖게 되는 것은 肢體障礙 그자체 때문에 건전하고 精確한 身體像(physical image)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인의 障礙를 父母의 잘못 때문이라고 敵意를 표시할 수 있고, 障礙人을 가진 父母가 그를 過保護하거나 과도한 요청을 하게되므로써 障礙人과 父母間에 원만한 關係가 形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障礙人들이 否定的인 태도를 갖게되는 이유는 障礙 그자체보다 社會集團成員의 態度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Mead, 1931).

인간은 누구나 身體의 어느부분이 損傷되거나 機能이 不可能하게 되면 그사람의 價値가 떨어지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생각때문에 個體의 어느일부에 障礙를 입게되면 自我價値觀마저 상실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內面的인 價値體系속에서 그 障礙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障礙가 반드시 自身的 價値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障礙가 價値低下의 條件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 주는 일이 부처중요한 것이다. 障礙 그자체가 人間의 價値觀을 상실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지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몇가지 價値觀 概念을 변화를 알아들 필요가 있다(구광웅, 1987).

첫째, 價値觀의 領域을 넓히는 일이다. 價値觀의 對象과 範圍는 다양하며 상대적인 것임을 알도록 개인적인 見解를 보다더 확대시켜주어야 한다. 障礙 그자체만 국한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障礙와 자신을 超越한 보다 넓고 肯定的인 關心을 갖도록 한다.

둘째, 體格을 副次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身體的 조건이 불리한 상황사는 생각에만 메이지 말고 자신의 內的 可能性을 찾아 開發한다면 더가치롭고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한다.

세계, 障礙의 影響이 크게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견제하는 일이다. 다른 많은 삶의 領域에 까지 影響을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障礙의 影響을 縮小하여 생각하도록 하고 否定的인 생각을 抑制하고 바꾸어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째, 自己自身이 가지고 있는 自我에 대하여 바르게 評價하는 일이다. 즉 障礙人들은 자칫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가지고 있지않은 면만을 執着하지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면에 더 강조점을 두도록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障礙人이 자라나는 과정속에서 일찍부터 障礙에 대한 바른 理解가 싹트게 하고 障礙가 반드시 自己價値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價値觀과 身體特性과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論理에서 推論될 수 있다(김기웅, 1975, 윤인호, 1977).

첫째, 價値觀이 우선 身體에 의해 상당한 부분이 결정되며 자신에 대해 개인적 社會화된 思想과 價値에 의해 發達하며, 價値觀 發達이 身體的 自我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社會的 自我(social self)로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自己概念의 發達過程에서 身體的 價値觀은 自我形成의 최초단계이며 根源이라고 하였다.

둘째, 人格이란 그환경에 대한 그 사람 讀者의 適應을 규정하는 心理的-逆動的 體系이다. 價値觀은 自己의 身體的 조건과 과거의 自己에 대한 기대적 理想과 價値를 실현시키고저하는 信念이 複合된 것이다. 健康하면 활동력이 강하고 그로인하여 社會活動은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病이 들었거나 몸이 약하면 매사가 消極的이고 또 劣等感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이 身體的인 健康은 知的인 發達과 對人 關係를 통한 社會的 發達 및 情緒의 發達 등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價値觀과 身體像(body image)의 관계는 곧 身體的 特性과 價値觀과의 관계를 지지해준다. 身體의 出現에서 身體의 크기, 체형, 신체기능이 변화는 깊은 心理的 의미를 가지며 身體의 自己價値觀概念에 影響을 준다.

이와같이 그들의 身體一部分이 이상형이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挫折感이나 劣等意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心理的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心理的 特性이 障礙人의 價値觀에 影響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III. 研究方法

#### 1. 調查對象

本 研究의 調查 對象은 大邱, 서울, 釜山, 大田, 그리고 慶州에 있는 特殊學校高等部에 在學중인 肢體障礙 學生 197名을 對象으로 하였고, 比較集團으로서 障礙가 없는 大邱에 있는 N 高等學校의 한 學級을 對象으로하였다. 正常學生을 한 學級만 표집한 이유는 본 研究에 使用한 性格檢査나 價値觀檢査는 公認 標準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調查道具

本 研究는, 먼저 障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arno등 (1973)이 고안한 動作性檢査를 실시하였다. 다음에 障礙人 心理的 特性을 알아보기위해, 性格上에 問題를 診斷하는 性格調查와 個人 價値觀 調查를 사용하였다. 먼저, 障礙學生은 動作性檢査, 性格檢査, 價値觀 檢査를 실시하고, 正常學生은 性格檢査와 價値觀檢査만을 실시하였다.

(1) 動作性檢査: 여기에는 日常生活動作(activity daily living, ADL)과 家事活動(home activities)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日常生活에서 자기 스스로 活動할 수 있는 程度를 알아보기 위한 目的으로 測定하였다. 日常生活動作과 家事活動은 모두 15문항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完全獨立은 5點, 完全한 依存은 1點을 배정한 5點측도로 되어있다.

(2) 性格調查: 이 檢査는 鄭元植과 金豪權(1981)이 標準化시킨 性格檢査 질문지로서 8가지 特性要因(本 研究에서는 妥當性を 除外한 7가지만 사용)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총 288문항으로 되어있다(정원식과 김호권, 1984).

(3) 個人 價値觀 檢査: 이 檢査는 黃應淵과 李慶惠(1986)가 標準化시킨 것으로, 日常生活에서 당면하는 問題에 대해 個人이 대처해 나가는 方式을 價値觀 측 면에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 特性要因은 6가지 要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황응연과 이경배, 1986).

#### 3. 調查方法

자료수집은 1991년 3월 2일-30일까지 肢體障礙學校



중, 서울, 大田, 大邱, 釜山(3. 2-9), 그리고 慶州지역 (3. 25-30)에 在學중인 高等部 學生을 對象으로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豫備調査는 1990. 9. 20-30일 실시하였다. 動作性檢査는 각 特殊學校 療育教師가 障礙 정도를 判定하고, 性格檢査와 價値觀檢査는 本 研究者와 生活指導 教師가 個人 面接形式으로 실시 하였다.

#### 4. 資料分析

(1) 採點: 첫째, 動作性檢査인 경우는 총 15문항 으로인데 5點 尺度로 구성되어 있으며(日常生活 動作 7문항, 家事活動 8문항), 正常人에 가까운 遂行點數인 만점은 75점이 되고, 최하점은 15점으로써 가장 次元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둘째, 性格檢査는 7가지 特性要因에 대한 것을 百分率 點數로 變換한 尺度를 가지고 分析하였다. 이 檢査는 제작 당시에 이미 正常分布 曲線으로 標準化된 것이기 때문에 백분율 點數를 갖고 分析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각 特性要因에서 50點은 바로 正常分布上에 平均點을 意味하는 것이다.

셋째, 個人 價値觀 檢査도 역시 正常學生에 대한 百分率 點數로 換算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特性要因에 대한 점수도 性格檢査와 마찬가지로 원점수에 대해 正常分布上에 百分率 점수로 換算하여 分析하였다.

(2) 資料의 處理: 障礙人 集團이 正常人 集團과 性格 및 個人價値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 日常生活 및 家事活動을 측정된 動作性이 性格 및 價値觀에 미치는 影響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을 分析하였다. 통계처리는 IBM-PC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分析 하였다.

### IV. 分析結果 및 考察

#### 1. 障礙學生에 대한 動作性檢査의 分布特性

動作性檢査는 日常生活活動(7문항)과 家事活動(8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分布機相을 보면 <表IV-1>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障礙程度는 자신이 동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1) 도움이 없이 움직일 수 있으면 5點, 2) 전적으로 他人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1

點으로하여 5點속도 하였다. <表IV-1>에서는 研究者가 임의로 障礙程度를 20點 간격으로 3등분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障礙程度가 가장 심한 경우는 '重度'에 속한다. 本 研究의 피험자는 動作性檢査에 따른 結果로 볼 때, 비교적 障礙가 가벼운 편임을 알 수 있다.

<表IV-1> 障礙集團의 動作性點數에 따른 分布樣相

障礙程度	點數範圍	實數(%)	累積百分率
重度	15-35	13( 7.8)	7.8%
中度	36-55	57(31.3)	39.1%
輕度	56-75	109(60.9)	100%

#### 2. 性格檢査

正常集團과 障礙集團간의 性格檢査 結果를 보면 <표IV-2>와 같다. 이 검사는 원점수를 正常集團에 대한 分布樣相에 따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여 分析하게 되어 있다. 본 검사는 價値觀 檢査와는 달리 백분율점수가 높을수록 性格特性의 要因상에 問題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平均點數가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그 特性要因에 속하는 性格에 問題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먼저, 性格特性에서 家族關係 要因의 평균점수는 障礙學生集團(M=58.75)이 正常學生集團(M=44.47)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有意味하였다.(P<.001). 이 要因이 보여주는 것은 障礙集團이 父母 및 兄弟들간의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結果는 障礙學生의 어머니와 학생간의 肯定的인 면보다는 오히려 否定的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障礙學生 가운데는 특히 知的으로나 身體的으로 劣等한 뇌성마비아동에 있어서는 더욱 현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障礙學生의 父母나 家族들이 學生에게 너무 過敏하여 過剩保護나 무시하는 경우에 障礙學生들이 찾아야할 補償活動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에서 기인되거나, 아니면, 障礙學生의 父母는 자기들의 기대에 치우쳐 客觀的인 평가할 수 없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사려된다. 따라서 障礙集團의 家族關係가 원만하지 못한은 精確한 知覺을 할 수 없는 결과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고 한 研究(Symonds과 Brice, 1965, 최봉상, 1988)와 비슷한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表Ⅳ-2〉 正常集團과 障礙集團의 性格特性(t 檢證)

變數名	Group	N	M	SD	t	p
家族關係	障礙學生	179	58.75	24.42	2.96	p<.001
	正常學生	46	44.47	30.22		
交友關係	障礙學生	179	57.58	26.13	.00	N.S
	正常學生	46	57.56	26.41		
對應性	障礙學生	179	59.92	27.49	2.94	p<.001
	正常學生	46	45.41	30.33		
適應性	障礙學生	179	65.21	24.93	.705	N.S
	正常學生	46	61.97	28.40		
明朗性	障礙學生	179	58.20	27.56	1.56	N.S
	正常學生	46	50.54	30.14		
情緒的安定性	障礙學生	179	67.12	25.48	.423	N.S
	正常學生	46	65.10	29.68		
指導性	障礙學生	179	64.51	24.63	.223	N.S
	正常學生	46	63.54	26.90		

다음에 對應性要因에서는 평균점수가 障礙學生 (M=59.92)이 正常學生(M=45.51)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有意味하다(P<.001). 이척도가 시사하는 바는 障礙學生이 正常學生에 비해 상대적으로 行動이 無責任하고, 衝動的이며, 다소 反抗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볼때, 自制力이 不足하고, 個人的이며, 또한 自己中心的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한 研究와 일치한다(김규수, 1988. Shantz, 1978). 責任性도 다소 缺如되어 있어서 規則을 준수하는데 덜 嚴格하며, 현실에 對應하는 능력이 덜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障礙人이 心理的으로나 社會的으로 適應하는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研究와 일치한다(Cruickshank, 1966) 또한 障礙者福祉便覽에 따르 障礙人의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이고 不適切한 상황을 변화시켜보려는 意志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障礙人이 변화자체를 否定하거나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外部世界에 대한 不安이나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McCandless의 否定的 概念을 가진 兒童의 경우 自身感이 없고 환경에 대한 不適應的인 면이 많기 때문에 학습활동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 것과 유의하다(McCandless, 1979). 障礙集團이 상대적으로 自身感의 缺如나 자기자신을 無價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將來에

대하여 希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悲觀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學習活動이나 학과 성적에 개외치 않으며, 劣性도 不足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要因들 즉, 交友關係, 適應性, 明朗性, 그리고 情緒的 安定性에서는 正常集團과 비교해볼때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明朗性에서는 障礙學生(M=58.20)이 正常學生(M=50.54)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경향성만을 보였다.

肢體障礙學生의 心理的 再活에 對應하는 要因이 일차적 關心이 요구됨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身體障礙學生의 心理的 再活은 家族員들이 障礙人 家族員을 있는 그대로 偏見없이 정확히 수용할 수 있도록 家族構成員의 教育認識과 이해를 위한 家族治療的 介入 要望된다.

肢體障礙學生 당사자에 대한 心理的 再活은 對應性 즉 無責任性, 自制力缺如, 自己中心性의 特性을 變化시키는 데 있다 하겠다. 한편 交友關係, 適應性, 明朗性, 그리고 情緒的 安定性에 특별한 有意味한 차이가 없음은 身體障礙人의 心理的 再活의 豫後가 밝고 對應性要因 再活에 있어서는 다른 障礙人 보다 介入이 容易하고, 그 效果에 대한 豫後도 좋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러한 結果는 肢體障礙學生의 性格特性상 對應性을 제외하고는 큰 歪曲이 없음을 의미하고 心理的 再活에 豫後가 좋은 潛在力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해준다 하겠다.

### 3. 個人 價値觀 檢査

이 檢査는 日常生活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 個人이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價値觀 側面에서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그 特性要因은 <表IV-3>과 같은 6가지 要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도는 性格檢査 點數와는 달리, 檢査點數에 대한 백분율 變換點數가 높을 수록 각 要因에 대한 價値觀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나타낸다.

障謨學生과 正常學生간에 個人 價値觀 檢査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t검정한 결과는 <表IV-3>과 같다. 먼저, 多樣性(variety) 要因의 평균점수는 障謨學生(M=84.13)이 正常學生(M=75.84)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有意味 하였다(P<.001). 이 결과는 逆說의인 결과로 보이는데, 障謨學生이 正常學生보다도 日常生活에서 多樣性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더 강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性格檢査 結果<表IV-2>에서와 관련해 다소 例外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Cruickshank(1966)의 조사에서와 같이 社會에 접촉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태도가 未熟하고 微分化되어 있다는 것과 행동의 범위가 전한되어 접촉하는 기회가 적어 사물의 經驗이나 見聞이 狹小하다는데 기인된다. 즉, 障謨集團은 正常集團보다 평상시 行動半徑이나 日常 經驗의 기회가 부족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경험에 대한 相對的 缺乏感을 더 크게 느끼고 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問題는 障謨人이 오히려 자신의

心理的 萎縮을 過剩補償하는 心理的 防禦機棼(defense mechanism)를 사용할 수 있다(김자인랑등, 1988)는 점으로 해석된다.

다음에 目的 指向性(goal orientation)에서는 障謨學生(M=16.25)이 正常學生(M=29.73)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차이는 통계적으로 有意味 하여다(P<.001). 이 결과는 障謨學生이 正常學生에 비해 日常生活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끈기 %계 대처해 나가려는 경향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明確한 目的意識이 缺如된 狀態이거나, 目的을 達成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自身感이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의 다른 要因 實用性, 成就性, 決斷性, 그리고 規則性에 대해서는 障謨集團과 正常集團간에 有意味한 차이가 없다. 즉 日常生活에서 實質的이고 効果的인 일을 하려는 實用性, 어려운 일도 과감히 접해보고 싶은 成就性, 어떤 일이 결정되면 계속적으로 修行 하려는 決斷性,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잘 정돈하고 規則的으로 행동하려는 規則性에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肢體障謨學生의 心理的 再活에 있어서 實用性, 成就性등은 正常集團보다 더 좋은 潛在力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有意味한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價値觀 측면에서 肢體障謨學生이 再活서비스가 요구되는 要因으로는 目的指向性이 正常集團에 비하여

<表IV-3> 正常集團과 障謨集團의 價値觀 特性(t 檢證)

變數名	集團別	實數	M	SD	t	p
實用性	障謨學生	179	54.79	30.28	.571	N.S
	正常學生	46	52.21	26.50		
成就性	障謨學生	179	57.85	27.95	.782	N.S
	正常學生	46	54.39	26.45		
多樣性	障謨學生	179	84.13	14.90	3.64	P<.001
	正常學生	46	75.85	13.43		
決斷性	障謨學生	179	46.15	30.58	-.573	N.S
	正常學生	46	49.21	32.70		
規則性	障謨學生	179	42.77	28.28	-1.27	N.S
	正常學生	46	48.45	26.63		
目的指向性	障謨學生	179	16.25	17.07	-3.66	P<.001
	正常學生	46	29.73	23.46		

현저하게 낮은 점과 多樣性에서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인 점이라 하겠다. 心理的 再活프로그램은 지나친 過剩補償的인 多樣性을 현실적인 補償으로 변환시켜서 현재 當面한 문제를 散漫性없이 끈기있게 目的意識을 가지고 目標을 達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要請됨을 밝혀준다고 하겠다.

#### 4. 動作性과 性格特性要因 간에 相關關係

動作檢査를 日常生活動作 점수와 家事活動 점수로 각기 나누어 性格檢査의 각 特性要因간에 相關關係를 分析한 結果(Pearson 상관계수)를 보면 <表Ⅳ-4>와 같다. 이 결과에서 障礙檢査 點數가 높다는 것은, 障礙學生 주에서도 相對的으로 日常動作에서 어려움이 적다는 의미이다. 다음에 性格檢査 점수는 역으로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백분율 점수가 높을 수록 性格상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요인 間に 定額相關을 보여주는 것은 곧, 障礙의 정도가 微弱할 수록 상대적으로 性格상에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表Ⅳ-4> 動作性(日常生活動作과 家事活動)과 性格特性 要因간의 相關關係(N=179)

要 因	日常生活 動作點數	家事生活 點數
家 族 關 係	.146*	.145
校 友 關 係	.040	.147*
對 應 性	.344****	.320****
適 應 性	.182**	.193***
明 朗 性	.235****	.194***
情 緒 的 安 定 性	.149*	.189**
指 導 性	.054	.083

\*P<.05 \*\*P<.02 \*\*\*P<.01 \*\*\*\*P<.001

動作性과 性格特性간에 相關關係는 거의 무시할 만한 ( $r<.20$ ) 수준의 相關이거나 낮은 수준( $r<.30-40$ ) 즉, 對應性, 明朗性뿐인 상태이다. 日常生活 動作性은 對應性이  $r=.344(P<.001)$ , 明朗성이  $r=.235(P<.001)$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相關성을 보였다. 이는 性格特性的 對應性要因인 無責任性, 自制力缺如, 自己中心性등이 日常生活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관을 가지고 있어, 對應性要因에 변화를 주면 日常生活動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影響變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明朗性요인 역시도 日常生活動作이 影響을 줄 수 있는 變數임을 의미한다.

家事活動 動作性 역시도 다른 性格特性要因과 相關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나 對應性要因은  $r=.320(P<.001)$ 로서 낮은 수준이나 性格特性을 매개체로 한 介入戰略으로는 가장 影響力인 변수로 選定할 수 있다. 즉, 家事活動을 변화하기 위한 再活介入은 性格의 對應性要因을 變化시키는 것에 目標로 두는 것이 가장 効果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動作性 즉, 日常生活動作과 家事生活動作을 통한 社會適應力 향상을 목표로 한 心理的 再活에서는 性格特性要因인 對應性, 明朗性에 治療的 介入을 함이 가장 效果적임을 추출할 수가 있다.

#### 5. 動作性과 價値觀 要因 간에 相關關係

動作性(日常生活動作과 家事活動)과 價値觀 要因간에 相關關係를 보면 <表Ⅳ-5>와 같다. 이 결과를 보면, 動作性和 規則性  $r=-.165(p<.05)$ 간에만 有意味한 相關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障礙의 정도가 약할 수록 規則性을 가지려는 價値觀과 否的相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表Ⅳ-5> 動作性(日常生活動作과 家事活動)과 價値觀 要因간에 相關關係(N=179)

要 因	日常生活 動作點數	家事生活 點數
實 用 性	-.087	-.061
成 就 性	.077	.071
多 樣 性	.032	.097
決 斷 性	.107	-.084
規 則 性	-.169*	-.207*
目 的 指 向 性	-.106	-.109

\*P<.05

여기서는 規則性하고만 有意味한 相關을 보였는데, 個人 價値觀 측면에서 規則性이란 個人이 秩序를 지키고, 물건을 정돈하고, 때와 장소에 알맞은 行動을 행하려고 하는 데 價値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障礙學生 중에서도% 비교적 障礙가 덜한 學生들이 規則性要因과 否的相關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身體的 缺陷에 대해 오히려 心理的 萎縮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도 性格要因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本 結果를 종합적으로 考察하면, 첫째, 性格特性 要因에서 肢體障礙學生이 正常學生에 비해 家族關係와 對應性에서 否適應的인 傾向을 보였다. 이 결과는 心理的 不適應 過程을 5단계로 나누어 기술한, 昇地

三郎(1976)의 障害重積深化過程 모델에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는 肢體不自由를 1次 症狀으로 간주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情緒不安, 劣等感, 反應行動, 反社會的 行動까지 누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만일 障人이 身體的 결함으로 인해 心理的으로 점차 否適應的인 行動으로 발생되어질 가능성을 이론화한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의 被験者들이 주로 輕度의 障人(전체 被験자의 60.9%)으로 볼 때, 反社會的 行動까지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反應行動까지 心理的 不適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個人 價値觀 要因에서 障人學生은 正常學生에 비해 多樣性과 目的指向性에서 心理的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多樣性에 대해서는 障人이 오히려 正常人에 비해 더 높은 價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일반적인 概念과는 相値되는 것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障人이 防禦機 祭로서 補償心理를 지나치게 높게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金子仁郎, 1988), 本 結果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障人이 평상시 行動半徑이나 生活經驗이 缺如되어 있다는 點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사실은 障人의 心理特性으로써, 障人이 겪는 行動範圍의 한계에 대한 不滿을 언급한 것과 일치된다(Pomp, 1963) 다음에 目的指向性 要因은 障人이 正常人보다 더욱 낮은 價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價値觀 要因을 볼 때, 障人에 대한 價値觀 教育을 할 때, 目的指向性 要因을 가장 주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셋째, 動作性과 性格要因과의 相關關係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動作性을 日常生活 動作과 家事活動으로 나누어 分析하였는데, 하위 두 요인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障人集團은 어떤 일을 할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따라 不安한 感情을 나타내게 된다(안병준, 1976). 여기에서도 이에 附合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즉 對應性과 가장 相關이 높다는 것은 障人學生들이 어떤일을 시작했더라도 늘 不安感이 作用하여 途中에 중단하게 되는 特性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다. 다만, 障人의 정도가 微弱할 수록 對應性, 明朗性, 適應性, 正當의 安定性, 家族관계, 그리고 交友關係 要因 순으로 더욱 더 深刻한 心理的 問題를 내포하고 있었다.

네째, 動作性과 價値觀 要因과의 相關關係에서는 性格要因 만큼은 심각하지 않았다. 다만, 規則性 要

因에만 正常人에 비해 낮은 價値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結果는 價値觀 檢査가 性格檢査에 비해, 深層의 心理狀態가 아닌 表面的 狀態, 혹은 現實生活에서의 心理的 指向性을 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사려된다. 즉, 障人이 자신의 身體的 缺陷에도 불구하고 表面적4으로 바람직한 價値觀을 指向하고자 하는 要求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本 研究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障人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輕한 學生들이 오히려 心理的 問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肢體障人學生의 正常學生보다 性格特性이나 價値觀 特性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豫見되는 바이지만, 障人의 정도가 輕할 수록 心理的 蒸縮이 심하다는 것은 再活 教育의 방향을 再考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는 肢體障人 정도가 輕할 수록 適應的 要素가 더 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障人이 심한 경우보다 心理的 問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은 心理的 再活에 대한 關心이나 方法이 適合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問題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障人學生이 家族關係 性格要因에서 더 심각한 問題를 보였는데, 이것은 障人에 대한 家族構成員의 지나친 過剩保護나 偏狹한 愛情이 오히려 心理的 再活에 부작용으로 作用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障人自體에 대한 不滿이 家族構成員에게 가장 쉽게 표출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心理的 再活이란 어느 한쪽으로는 偏重을 豫防하는 것이므로, 家族構成員이나 社會的 溫情의 視覺은 障人을 獨立시킨다는 측면에서 行하여져야 하겠다.

## V. 結 論

本 研究는 肢體障人의 모든 再活에 가장 根本的인 心理的 再活을 위한 障人의 心理的 特性要因을 分析한 探索研究이다.

調査는 高等部 肢體障人學生 179명과 正常學生을 對象으로 性格特性, 價値觀特性, 그리고 動作性을 比較分析하고 性格特性과 動作性, 價値觀特性과 動作性의 相關關係를 살펴보았다.

첫째, 性格特性 면에서 肢體障人學生의 集團은 家族關係要因이 正常集團보다 높게 나타나 家族關係上에 完만하지 못함을 보였는데 이는 障人 家族構成員인

父母나 家族들이 過敏하여 過剩保護하거나 無關心하는 등, 있는 그대로 收容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對應性要因에 있어서도 正常集團에 비하여 障礙人集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無責任하고 自制력이 약하며, 自己中心的 傾向이 짙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障礙人의 心理的, 社會的 適應에 어려움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交友關係, 適應性, 明朗性, 情緒安定性 등은 有意味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性格側面으로는 家族關係要因과 對應性要因이 心理的 再活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價値觀 측면에서 肢體障礙學生은 多樣性 要因에서 正常集團보다 平均點數가 높게 나타나 生活에서 多樣性은 더 많은 추구하려고 하는 意圖가 있음을 보였다. 이것은 社會的 接觸機會의 制限과 事物의 經驗과 見聞의 狹小感에서 오는 것으로 思慮된다. 또한 目的指向性要因은 肢體障礙學生이 正常集團보다 낮은 點數로 보여 日常生活에서 多樣한 問題에 對處하는 意志가 약함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肢體障礙學生은 相對的으로 自身이 生活하는 데 명확한 目的意識이 缺如되고, 目的達成을 위한 協力意志가 부족함을 表明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價値觀 次元에서 心理的 再活을 介入對象은 多樣性을 最大로 能力에 맞게 制限한 다음 分명한 目的을 가지고 적은 일에 서부터 成就滿足의 機會를 갖게하는 것에 着점을 두어야 함을 確立할 수 있었다.

셋째, 肢體障礙學生의 動作性은 性格特性과 價値觀 要因에서 낮은 水準의 相關性이 있음을 보였다. 日常生活動作은 性格의 對應性要因과 明朗性要因이 相關性을 보주고 있다. 이는 性格特性인 對應性과 明朗性에 變化를 주는 再活서비스는 日常生活에 影響을 줄 수 있음을 意味한다. 또한 家事活動 역시 對應性과 相關性을 活動性의 變化를 주기 위한 心理的 再活서비스는 自己中心에서 他者指向으로 責任性, 自制力을 강화하는데 投與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네째, 肢體障礙學生의 動作性과 價値觀과의 相關性은 規則性에서만 낮은 水準의 關係가 나타났다.

요컨대, 肢體障礙人의 心理的 再活에서 介入對象은 性格特性으로서는 家族關係, 對應性, 價値觀特性으로서는 多樣性, 目的指向性으로서 이러한 特性을 위한 介入 프로그램이 보다 効果的인 것임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心理的 再活要因인 性格의 對應性과 明朗性은 日常生活動作이나 家事活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選定할 수 있었다. 그리고 價値觀 特性要因중 規則性은 日常生活動作과 家事活動에 낮은 水準의 否의 相關性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再活에 있어서 연구는 研究課題는 本 研究에서의 같이 心理的 再活을 探索하여 내듯이 醫療的, 教育的, 職業的, 社會的再活 등에 特生要因을 각각 探索하고 이들 要因간에 相互關係性을 찾아내는 研究를 하여야 한다. 肢體障礙人의 再活에 있어서 이와 같은 研究가 先行되지 않고서는 効果的인 再活프로그램은 물론 서비스 창출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1. 權奇德. 身體障礙兒童의 自我概念에 대한 父母知覺의 一研究. 特殊教育연구, 1981.
2. 金圭秀. 醫療社會事業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8.
3. 金基雄. 身體的 變因과 自我概念과의 關係.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75.
4. 金相圭, 全幸一 外. 社會福祉論. 서울: 螢雪出版社, 1990.
5. 金重大. 障礙者福祉論. 大邱: 弘益出版社, 1989.
6. 金喜慶, 李正淑. 問題兒 臨床心理學. 서울: 教文社, 1990.
7. 安秉輯. 肢體不自由兒教育. 大邱: 韓社大 出版部, 1978.
8. \_\_\_\_\_. 治療教育原理. 大邱: 韓社大 出版部, 1976.
9. 呂光應. 障礙에 대한 心理學的 理解. 月刊肢體創刊號, 1987.
10. 吳炳勳. "脊髓損傷者의 再活". 最新醫學, 제28권, 1985.
11. 吳貞熙. 再活醫學. 서울: 大學書林, 1985.
12. 李永泰. 韓國障礙者 職業再活事業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1988.
13. 李泰榮. "心身障礙者福祉對策의 基本方向". 心身障礙者의 福祉와 教育對策의 方向, 서울특별시, 자행회 공동주최 세미나, 1981.
14. \_\_\_\_\_. "心身障礙者와 福祉館". 峨山, 제12호, 1981.
15. 鄭元植, 金泰權. 性格診斷檢査. 코리아나테스팅센터, 1984.
16. 曹秉水. 肢體不自由兒 教育研究. 大邱保健學校 肢體不自由兒 教育研究部, 1988.
17. 黃應淵, 李慶惠. 個人價値觀檢査. 코리아나테스팅센터, 1986.
18. 孫義陸. "우리나라 心身障礙者 福祉의 課題". 社會福祉, 제75호, 서울: 韓國社會福祉 協議會, 1982.
19. 윤인호. 체육심리학. 서울: 춘호사, 1977.
20.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障礙者福祉 便覽. 1981.

- 21 최봉삼. 지체장애자의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22 黃源泳. "心身障碍者와 福祉". 社會事業家協會세미나, 韓國社會事業家協會, 1980.
- 23 金子仁. 患者의 心理. 金學默, 李丙允 共譯, 患者의 心理, 서울: 一湖閣, 1988.
- 24 橋本重治 外2人. "肢體障碍兒の經驗と概念" 特殊教育研究; Vol. VII, NO.1, 1969.
- 25 昇地三郎. 腦性マヒ兒の治療教育. 東京: ツネルア書房, 1976.
- 26 \_\_\_\_\_. 異常兒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1969.
- 27 手塚直樹. 障碍者福祉論, 東京: 光生堂, 1982.
- 28 Allen, F. H. & Pearson, H. J. "The Emotional Problem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Child". *British Journal of the Medical Psychology*, 1928.
- 29 Barker, R. G. "The Social Psychology of Adjustment to Physical Disability". in *Psychological Aspect of Physically Disabled*, 1953.
- 30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ow York: McGraw-Hill, 1978.
- 31 Benniga, J. S. The Relation of Self Concept Sex and Intelligence to Judgement in Young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1977.
- 32 Brice, H. V. "Some Factor that Contribute to the Concept of Self in the Child with c. p.". *Mental Hygiene*. 1965.
- 33 Buke, D. A. & Sellin, D. F. "Self-Concept of Ability as Aworker Scale". *Exceptional Children*, 10, 1972.
- 34 Cook, J. J. Dimensional Analysis of Child Attitudes of Parents of Handicapp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1963.
- 35 Cruickshank, W. M.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hiffs: Prentice-Hall, Inc., 1966.
- 36 Davis, C. J. "Development of Self-Concept". *The New Outlook for the Blind*, 58, 1964, p. 150.
- 37 Hall, C. 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0.
- 38 Havard A. Rusk. "Rehabilitation Medicine". 2nd ed., The C. V. Mosby Co., Saint Louis, 1971.
- 39 Heney H, Kessler. *The Knife is not Enough*, New York: W. W. Morton & Co., 1968.
- I. L. O. Recommendation No. 99, I. Definitions I. (b).
- 40 Kirk, S. A.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72.
- 41 McCandless, B. R. *Children: Behavior and Development*.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9.
- 42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1. P. L. pp. 94-142.
- 43 Pomp, H. A Study Self-Concept Distortion in Physic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Eight Grade Stud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63.
- 44 Robert, M. Goldenson et a.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Handbook*. New York: McGraw Hill Co., 1978.
- 46 Rokeach, M. *The Nature of Hum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47 Sarno, J. & Levita, J. S. "The Function Life Scale". *Arch. Phys. Rehabil.*, 54, 1973.
- 48 Shontz, F. C. "Psychological Adjustment to Physical Disability". *Trends and Theories, Ach. Phys. Med. Rehabil.*, 59, 1978.
- 49 Symonds, P. M.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s cited by P. H. Del Nero, op., p. 28.
- 50 Wick, E. D.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37, 1977.
- 51 Wylie, A. C. "The present Status of Self Theory". in E. F. Borfatta & W. W. Lambart(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8.